

Today Chart Bo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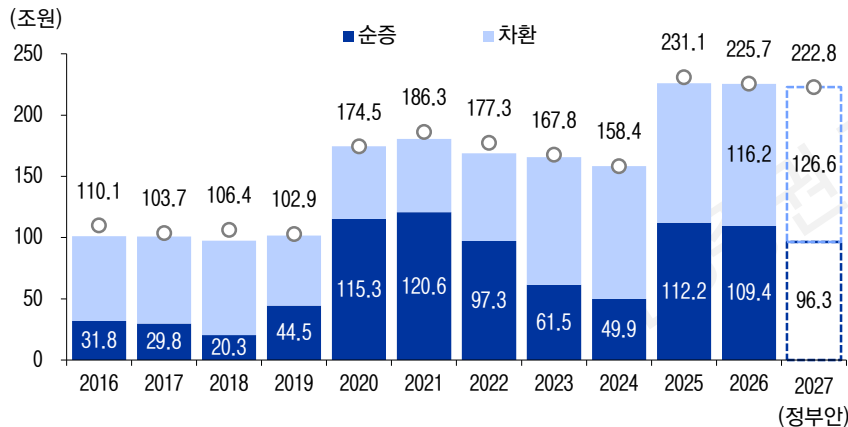
2026. 9. 1

채권 우혜영

whydele@ls-sec.co.kr

2027년 연간 국고채 예상 발행액, 세수 급증에도 220조원대

구분	2026년	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	본예산	추경				
재정 지출 (증가율)	727.9 (8.1%)	753.0 (11.8%)	820.9 (12.8%)	894.6 (9.0%)	957.4 (7.0%)	1,005.2 (5.0%)
재정 수입 (국세 수입)	675.2 (390.2)	700.6 (415.4)	880.8 (584.4)	920.5 (606.7)	951.8 (625.5)	984.6 (644.8)



구분	2026년(본예산, 조원)	2027년(정부안, 조원)	증감(조원)
발행	225.7	222.8	-2.9
순증	109.4	96.3	-13.1
만기상환	90.5	110.7	20.2
시장조성	25.8	15.9	-9.9

자료: 언론보도종합, LS증권 리서치센터

연간 국고채 만기별 발행 비중 실적 및 계획

연도	2년	3년	5년	10년	20년	30년	50년
	단기		중기		장기		
2021년 목표 (실제)	30±5% (27.0%)		40±5% (38.6%)		30±5% (34.4%)		
2022년 목표 (실제)	25±5% (26.9%)		40±5% (36.5%)		35±5% (36.6%)		
2023년 목표 (실제)	30±5% (28.7%)		35±5% (33.6%)		35±5% (37.7%)		
2024년 목표 (실제)	30±3% (28.5%)		35±3% (33.5%)		35±3% (38.1%)		
2025년 목표 (수정 계획)	30±3% (동일)		35±3% (30±3%)		35±5% (40±5%)		

재정경제부 박민주 국채정책과장, 보험사 수급 여건 등 영향에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만기를 비중에서 조정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
→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 확정은 올해 12월 중 발표 예정

Key Point

● 9월 1일, 정부는 2027년 예산안 확정

- 재정 지출: 2026년 727.9조원(본예산)/753조원(추경) → 2027년 820.9조원
- 재정 수입: 2026년 675.2조원(본예산)/700.6조원(추경) → 2027년 880.8원
- 재정 지출 증가율은 12.8%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
-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·세수 기반 확충 등으로 고수준 기대

● 잠재성장률 확충 위한 전략적 투자플랫폼·세수 변동성 완화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(162.3조원)

- 2027년 사업지출(45.4조) +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(12.5조) + 여유(약 104.4+α)

● 2027년 국고채 발행 물량은 222.8조원. 올해(본예산)대비 2.9조원 감소

- 순증 규모 감소했지만, 세수 급증에도 전체 발행액이 2.9조원 감소에 그친 점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. 금리 상승 압력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상방 요인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우혜영).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보합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—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—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—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—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LS 증권